

여성이 목사로 사역해야 하는가?

저자: 도로씨 켈리 패터슨
번역자: 김종환

신학연구소
2006년 10월

백서 13
신학연구소 발행
www.BaptistTheology.org

© 2006 도로씨 켈리 패터슨
번역 김종환 2007

허용: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제작된 이 자료의 자유로운 배포를 허용합니다.
단지 편집을 삼가하여 자료의 내용과 저자의 표현을 보호해주시오.
특별한 요청이 있으시면 백서 편집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tr@swbts.edu

신학연구소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원
포트워스, 텍사스
디렉터: 말콤 B. 야넬, III

성경적 모델

고린도전서 11:3-10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6.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찌니라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 이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찌니라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삼위일체의 위계구조와 같음을 제시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3 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천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기본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보완주의자들(complementarians)은 - 남녀의 동등성과 유익한 차이점을 동시에 수용하는 사람들 -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창 1:27-28); 남녀의 위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갈 3:28); 남녀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벧전 3:7).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위상이 신자들의 기능과 역할의 동일성과 무차별성을 뜻한다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가 거짓된 또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존재이며 동등한 인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 1:1; 5:23; 10:38; 14:6, 7, 9, 11). 그러나 성경은 또한 삼위의 직무와 기능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자는 자원하여 성부에게 순종(심지어 종 노릇) 합니다(요 5:19-20; 6:38; 8:28-29, 54; 고전 15:28; 빌 2:5-11), 그리고 성령은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성부의 지시에 따라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요 14:26; 15:26; 16:13-14).

삼위일체 내의 질서는 각 위가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성한 계획에 관련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역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성삼위가 서로 나누어져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다른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남자에게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 또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빌 2:5-11), 남자가 여자의 머리 또는 주인이라고 해서 여자가 열등한 인격체가 아닌 것입니다(엡 5:22-24). 성자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성부의 머리됨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업무수행의 능력이나 은사에 상관 없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리더십의 범위를 주권적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이미 타락 이전에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남녀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타락의 이야기(창 3)가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창 2)를 사용했습니다(고전 11:9). 역할의 분명한 구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세 가지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땅을 일구고 수고하여 그 소산을 통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흙을 돌보고 밭을 보호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정녕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맡기신 것은 남자에게 리더 역할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창 2:15-17). “돕는” 자로 만들어진 배필은 도움을 받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창 2:18, 21-23).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자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역할구분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했으며(고전 11:3-10), 동시에 여자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고전 11:11-12). 이 본문은 남자와 여자가 예배에 동참하는 것을, 명령하지는 않지만, 허용하고 인정해줍니다. 여자들도 교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경고

디모데전서 2:8-15

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 여자는 일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찌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꺾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꺾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정숙한 외모와 신실한 선행에 대한 충고 후, “순종”과 “조용”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용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음이나 양심이나 사적인 판단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 자체와 마찬가지로 순종의 자세는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원하여 다른 사람의 뜻에 양보하는 자세입니다. 이 본문과 고린도전서 14:33-35 에 조용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여자들이 예배에 동참하지 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본문들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모두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고전 11:5).

바울은 여자들이 조용히 배우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금합니다. 가르치고 주관하는 두 가지의 기능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어느 것도 배타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의 일반적인 범위를 개인의 임무수행능력에 상관 없이 주권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자의 순종을 노예제도나 인종적 불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감정적인 혼동 내지는 노골적인 왜곡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또는 강해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질서로 인해 여자가 순종해야 함을 선포합니다(고전 11:2-16; 딤후 2:11-13; 벰전 3:1-2).

바울은 여자 그리스도인이 가르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딤후 1:5; 3:15; 잠 1:8); 다른 여자들을 가르쳤습니다(딤후 2:3-4); 그리고 때때로 개인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남자들과 나누었습니다(행 18:26). 그러나 문법적 구조로 볼 때, 여기에 두 가지의 분명한 기능이 드러납니다: 여자는 남자들을 가르치지 않아야 하며 남자들을 주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과 주관함이 목사의 역할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살전 5:12; 딤후 5:17; 히 13:7, 17).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남자들을 주관하지 말라고 한 것이 1 세기에 제한된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여지가 바울의 글에는 없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이 신학적 지침은 창조질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의해 남자의 자연적이고 영적인 리더십과 여자의 돕는 배필역할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차이는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평등주의자들(egalitarians)의 주장과 다릅니다. 창조질서는, 타락 이전, 에덴동산에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에덴동산에서 역할이 바뀜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창 3:1-17). 바울은 아담의 잘못을 사면하지는 않지만 하와가 금단의 과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독자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와는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아담은 자신의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권고

디도서 2:3-5

3.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4.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웨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놀랍고 염려스러운 사실은 자칭 “성서적 남녀동권주의자(biblical feminists)”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들이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여자들이 가르침과 삶을 통해 일상생활 가운데 성결하게 사는 것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의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의 본문은 가정 내에서 남편 및 자녀와의 관계, 개인적인 성결과 성품, 일과 활동의 영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목록은 젊은 여자와 그 남편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같은 관계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독신녀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르치고 그 본이 되라는 도전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한가지는 자신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서 친히 쉬시며 교제 나누실 수 있도록 그들의 집을 개방했습니다(요 12:1-11). 거기서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음식을 드시며, 함께 쉬던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유명한 상인이었던 루디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하고 그의 나라를 말로 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루디아는 그녀의 교육과 사회적 위치와 사업수단으로 인해 존경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친절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행 16:14-15, 40).

결론

본질적인 문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경건한 여자들이 집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남자들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볼 때, 남자들의 리더십이 압도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사사들, 또는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물론 여자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창조질서의 범주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길버트 빌지키안(Gilbert Bilezikian)과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열 두 남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 여자들의 사역이 용납되지 않는 “문화적인 제한” 때문이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상충되게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롬 12:2).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가르침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부적절한 것입니다.

신약의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문화적인 압력으로 인해 도덕적인 사안에 있어 타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예수님의 통정성과 용기와 신성과 죄 없으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문화의 일부이셨지만, 그 문화를 초월한 분이셨고 때로는 그 문화에 역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화에 의해 지배 받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를 초월하며, 세대를 초월하여 힘차고 적절하게 퍼져나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완전히 사적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한 여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허용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계

2:20); 반면에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시험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계 2:2). 따라서 어떤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계획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교회는 그 일에 대해 성경적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최고의 지성이나 탁월한 논리나 비범한 은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현실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금방 무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운영하는 원리를 문화의 변덕에 따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남성됨과 여성됨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있어 가장 기본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목적을 유지하실 신성한 도구로 신중하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역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자연질서와 기능의 적합성에 기초한 하나님의 체계 속에서 온전하고 적절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가정과 교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원리와 상징과 목적과 실천적인 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단지 문화의 변덕을 만족시키거나 높은 교육 또는 기회를 수용하기 위해, 가정과 교회의 구조에 관한 진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구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성경본문들은 영원한 원리에 근거하고, 역사적인 관찰에 의해 증거되고, 신학적인 고찰을 통해 설명된 것들입니다. 이들은 특정한 교회나 어떤 역사적인 시점을 위한 예화들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여자들이 다양한 사역과 영향력과 리더십과 가르침의 위치에서 활동하되 정숙함과 질서 가운데서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고전 11:2-16; 14:40), 그리고 그 여자들은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않았습니다(딤후 2:11-15; 고전 14:33-35). 저와 당신과 같은 여자들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 이상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며,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권위 하에서 사역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기회

1. 디모테전서 2:11-12은 여자들도 배워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자들은 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의 본을 보이라는 도전과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은사가 여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절한 곳에서 그 배운 것을 적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2. 영적으로 성숙한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야 한다고 했으며(딤후 2:3-4), 그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이 분명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3. 여자들은 집에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 동등한 책임을 갖습니다(신 6:7-9).
4. 여자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벧전 3:15).
5. 여자들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고전 11:5).
6. 여자들은 가정의 보호자와 어린 아이들의 양육자로서 독특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잠 31:10-31).
7. 여자들이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딤후 2:11-15). 두 영역만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집이나 교회에서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성사역자의 모델

1.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행 18:26).
2.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두아디라의 루디아 같은 여자들은 신자들의 모임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여 손님대접하기를 실천했습니다(행 12:12; 16:14-15).
3.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결정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나 비범한 일을 통해 예외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즉,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일과 같은 것입니다(삿 4:5).
4. 바울은 뵈뵈와 같이 유능한 여자들을 호의적으로 언급했고(롬 16:1-2), 복음사역을 위해 여자들과 동역했습니다(빌 4:3).
5. 여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사역에 자원했습니다(요 12:1-11).
6. 여자들이 선지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이끌었던 미리암(출 15:20); 집에 찾아와 도움을 청한 남자들을 위해 성경에서 단 한 번 예언한 홀다(왕하 22:14-20); 그리고 거짓 여선지라고 불렸던 노아다(느 6:1-14); 또한 안나(눅 2:36-40)와 빌립의 딸들(행 21:9), 이들이 회중 가운데서 예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권면

1.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권위를 비판하지도 않으시고 의문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믿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비평함으로써 성경의 무류성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모든 성경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기억하면서(시 119:130-136),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십시오.
2. 1 차 자료를 사용하여 성경해석의 입장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서로 다른 견해를 대변하는 두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적 남성과 여성 협회(Council for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 보완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와 성경적 평등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Christians for Biblical Equality - 평등주의자들의 입장 대변). 두 기관을 통해 두 견해를 이해하는데 분수령이 될만한 서적들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학자의 견해이든지, 문서를 읽고 조심스럽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수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요일 4:1).
4.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고전주석서들을 참고하십시오.
5. 기독교 학술지, 정기간행물, 그리고 자신의 교단이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포럼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도록 요구하십시오.

도로씨 켈리 패터슨,
신학박사

총장 부인
여성학 교수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

